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기간에는 매 주일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회가 12월 15일(월) ~ 24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각자 편리한 시간을 미리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간 후반기 지역별 사랑방 모임을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방생활에 잘 참여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학교 학년말 발표회가 12일(금) 저녁 7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종합교육과정 피드백 모임이 14일(일) 2시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 감사 )  
정혜라 집사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인치명 권사 ( 감사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9호

2025년 12월 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교회력에서 볼 때,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구원사건들을 지금 현재, 바로 오늘 삶에서 다시 경험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컫는 말이 라틴어 아남네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세계 속에서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절기들은 모두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은 해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의 절기마다 오늘 자신의 삶의 내용이나 자리에 따라서 새롭게 경험되고 맛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교회력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력을 크게 나누면 '빛의 주기'와 '생명의 주기'로 나누어집니다.

빛의 주기는 성탄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의 주기 동안의 예배생활과 영성 생활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다리고,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뻐하고, 주현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소식들을 세상에 널리 드러냅니다.

반면 생명의 주기는 부활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는 사순절로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 성령강림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생명의 주기 동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강조가 되는데, 이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기가 끝나면 일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주기 사이에는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 '성취', 그리고 '선포'로 연결이 됩니다. 빛의 주기에서

선교와 섬김

대림절은 기대와 기다림의 시간이고, 성탄절은 성취의 시간이며, 주현절은 선포의 절기입니다. 생명의 주기에서 사순절은 기대와 기다림의 시간이고, 부활절은 성취의 시간이며, 오순절은 선포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4세기 말에 처음으로 기록된 대림절은 사순절과 짝을 이루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참회와 금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지켜졌습니다. 대림절은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회개의 절기로도 칭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대망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번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면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세상의 모든 불의와 싸움과 슬픔은 멈추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라나타’는 성경에 단 한번 나오는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분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2019년 12월 18일 선교와 섬김 발췌>

한주간의 말씀

“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  
 < 시편 72장 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95, 545 / 436  
 기도 : 이윤희 권사  
 성경 : 누가복음 4장  
 제목 :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1.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 What )
  - 1) 나사로의 확실한 죽음을 강조한다.<17,21,32,37,39,44>
  - 2) 예수께서 죽은 자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다.
  - 3) 내용의 중심: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2. 예수를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게 하셨다 ( Why )
  - 1) '믿음'에 대한 단어가 반복된다.<15,25,26,27,40,42>
  - 2) 믿음 강조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26>
  - 3) 예수께서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부활,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42>
3. 예수님은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이심을 믿으십시오 ( How )
  - 1) 예수, 생명과 부활의 주이심을 믿으십시오.<45>
  - 2)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롬10:9-10>
  - 3) 예수, 생명과 부활의 주이심을 널리 전하십시오.<행1:22>

Q 자신의 멋쟁이 생활을 한 줄 평한다면?

- 고여진 : 알차고 강력했다.  
 김예흠 : 짧고 굵다.  
 김주은 : 삶을 배웠다.  
 김재언 : 재미있었다.  
 조혜린 : 우다다다... 아이쿠 끝났다.

Q 멋쟁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멋쟁이가 있다면?

- 고여진 : 졸업생 은빈이 언니. 도파민이자 본이 되는 선배.  
 김예흠 : 졸업생 이안이 형.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영향이 컸다.  
 김주은 : 졸업생 온유 언니. 선배로서 어떻게 할지 모토가 되었다.  
 김재언 : 졸업생 현준이 형. 이유는 딱히 없다.  
 조혜린 : 내 친구 고여진. 고민상담 메이트로서 말이 마음에 박혔다.

Q 멋쟁이로서 이젠 멋쟁이 같았다 싶었던 순간?

- 고여진 : 크게 싸웠던 사람과도 화해할 때.  
 김예흠 : 마을 봉사 할 때.  
 김주은 : 뭐든 열심히, 열정 있게 집중하는 모습.  
 김재언 : 노작 할 때.  
 조혜린 : 사람들과 대화할 때.

Q 1학년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조언은?

- 고여진 : 영어 단어 외우자.  
 김예흠 : 당당해져라.  
 김주은 : 용기를 가지고, 학교 나가지마.  
 김재언 : 삼성전자 주식 사!!!!  
 조혜린 : 눈치 좀 챙기면서 살자 혜린아...

더 많은 이야기는 멋쟁이학교 소식지 코이노니아 38호에 있습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3 : 16-17  
64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에스겔서 18 : 21-22  
104, 116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벤 풀 위에 내린 비같이 오십시오”**

시편 72 : 1-7, 18-19  
105

설교자  
새작사랑방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615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임상희 전선희 / 봉헌위원 : 김영동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벤 풀 위에 내린 비같이 오십시오

솔로몬의 간구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님의 판단력과 의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원래 고대 왕은 자신이 곧 법이요 자기 뜻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법을 수탁 받은 대리자로서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군왕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입니다.

풀밭의 단비 개역개정에서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을 베어버린 들판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말라비틀어져 황폐해집니다. 이럴 때 단비는 죽어가는 뿌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움트게 만듭니다. 왕의 공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백성들 가운데 가져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은 송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때로 삶 속에서 악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상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하게 덮으실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재신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꾸러기들 옷도 두꺼워져 안전벨트를 다시 맞춰서 탑니다. 추위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이 생일을 기다리며 성경이야기도 듣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주에는 엄마들이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엄마표 간식의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의 정성이 가득한 맛있는 간식에 꾸러기들 얼굴에 함박 웃음꽃이 피입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찬양 퍼포먼스로 더욱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11월에 아픈 친구들이 많아 미웠던 성경암송의 날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16개의 말씀과 5개의 성경이야기 노래를 배웠는데 모두들 열심히 연습해 와서 아주 씩씩하게 암송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복장과 마이크를 가지고 씩씩하게 말씀을 외우는데 이 말씀들이 아이들 가슴 깊이 남고, 아직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길 바랍니다.

꾸러기들이 마음모아 준비한 선물을 요르단에 보냈습니다. 요르단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카드와 과자 선물을 준비해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선물에 담긴 마음이 잘 전달되어 예수님을 구주 삼는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눈코 뜰 새 없이란 말을 써도 무리가 없었던 한주를 보냈습니다. 과목마다 종강을 하고 학기말 발표회를 위해 촬영을 하고 틈틈이 놀아야 하고 거기에 흰 눈까지 내려서 눈놀이에 사진까지 찍어야 해서 즐거운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이슈가 되는 날은 화요일 고전읽기 점검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년

배움과 가르침

마다 정해진 책을 읽고 담임 선생님과 깊이 있게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친구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선생님들이 우 하면 좌 하는 느낌이지만 어쩔 세대간의 차이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은 전날 밤에 내린 첫눈으로 등교가 늦어졌지만 모두다 귀마개에 모자를 눌러쓴 귀여운 모습로 하나둘 나타나 주었습니다. 이제 종강발표회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한주 남은 이 시점에 모두가 유종의 미를 위해 열심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교 화이팅 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종강발표회의 열기가 덜 가신 월요일 오후, 멋쟁이들은 이미 생활관 별로 쏘파티를 진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엽떡, 치킨 등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싸들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고, 남학생들은 정성없이 축구를 차고 고기를 양껏 먹으려 나갔습니다.

서천과 군산은 멋쟁이학교에서 여행으로 처음 가는 지역이었지만, 맑은 날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첫 활동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다녀온 후 갯벌 앞 송림에서 덜덜 떨면서 스카이워크를 올랐습니다.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는 추억을 쌓았지요. 둘째날 오전에는 금강 옆에 늘어진 갈대밭에서 산책을, 오후에는 많은 학생이 기다리던 축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공동체훈련으로 마음들을 잘 정리했지요. 마지막 날에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부터 학년별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익히 아시는 갑작스런 눈으로 만들어진 빙판길 사태로 아슬아슬하게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잘 지나가게 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를 위한 새로운 회장으로 박성현 멋쟁이, 부회장으로 정아인 멋쟁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방학입니다. 계획을 떠올리며 알찬 시간들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빙판 위의 찬양

멋쟁이 종강여행의 마지막 날. 군산에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아이스링크장과 같았습니다. 예보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릴 줄은 몰랐고, 쉽게 빙판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기권에 들어오자 비상문자음이 울리고 도로들이 통제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거의 모두 잠들어 있던 멋쟁이들이 하나 둘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 들릴 수 없는 상황. 10분 거리를 거의 1시간에 걸쳐 가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학생들 입에서 '망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꾸 앞으로 나와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멋쟁이들과 '참아!'로 대답하는 선생님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학생들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아우성들을 치며 난리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신경을 탄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판단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종강발표회 때 불렀던 합창곡 '카레'를 운전하시는 집사님께 들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노래를 시작했고, 노래가 끝나자 누군가의 선창으로 시작된 찬양 릴레이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찬양을 다 외우고 있었다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멋쟁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빙판길을 가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온해 보이셨지만 많이 긴장하셨을 집사님께서도 멋쟁이들의 찬양소리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저리 열심히 찬양을 할 수 있다니... 다시 한 번 멋쟁이들이 기특하고 또 약한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찬양 후에 이제 본격적인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아버지~주여~~~ 살려주세요!!" 물론 학생들의 어려움은 저와는 다른 생리적인 어려움이었지만요~~^^ 저도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장장 7시간 반을 빙판길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공포에 떨었지만, 함께 있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었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탈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105장, 434장

성 경 : 로마서 16장 17-20절

말 씬 :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 순진하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홍콩 아파트 화재사건 >  
큰 화재사건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해외 선교사님들 >  
불안한 세계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여행 중인 멋쟁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 2)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공동체에 속한 연약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 생활공동체 소식 >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곳곳을 살피며 본격적인 겨울 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난방도 신경써야하고 동파되지 않도록 수도도 틀어놓고 온열기도 점검했습니다. 갑작스레 많이 쌓인 눈 때문에 걱정도 했지만 올 해 처음으로 내린 함박눈에 공동체는 빛나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